

Collection Gallery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Kyoto

교토 국립 근대미술관 컬렉션/갤러리
2017년도 제2회 컬렉션전

전시기간: 2017년 6월 14일(수) - 2017년 8월 6일(일)

해설

올해로 2회째가 되는 본 컬렉션전에서는 3층 기획전 회장에서 개최 중인 “최고의 기술 - 반클리프 아펠, 하이 주얼리와 일본의 공예” 전과 관련된 전시, 마르셀 뒤샹(1887-1968)의 레디메이드 작품 《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큐레이터얼 스터디즈 등 다채로운 테마로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컬렉션 갤러리 입구 옆 코너에서는 1906년에 창업한 반클리프 아펠이 크게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던 장식예술 국제박람회(1925년에 파리에서 개최. 통칭 아르데코전) 시대에 광고 디자이너로서 일세를 풍미하고 일본을 포함한 동시대의 수많은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아돌프 무롱 카상드르(1901-1968)의 포스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집 전시로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친 프랑스 근대회화의 흐름을 인상파에서 후기인상파, 나비파, 포비즘(야수파) 그리고 에꼴 드 파리라는 주요한 동향에 따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전시회를 통해 하이 주얼리가 전성기를 맞이했던 그 시대의 예술과 사회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화 섹션에서는 “여름의 일본화”라는 제목으로 다마무라 호쿠토(1893-1951), 후쿠다 헤이하치로(1892-1974), 미타니 도시코(1904-1992) 등과 같은 작가를 중심으로 단풍잎부용과 달리아 등의 여름 화초, 은어나 잉어 등의 물고기와 물가 풍경, 목욕 후의 시원함을 즐기는 여성 등 여름 풍물시와 관련된 테마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1930년에 로마에서 개최되었던 일본미술전 출품작인 요코야마 다이칸(1868-1958)의 《폭포》는 2015년도에 우리 미술관이 소장하게 된 작품이며, 그 당시 액자에 들어 있었던 본 작품을 본래의 족자 장식으로 수복한 후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힘차게 흘러내리는 물의 기세를 깊이가 있는 먹의 농담을 이용해 역동적으로 묘사한 본 작품을 주목해 주십시오.

공예 섹션에서는 3층의 기획전 “최고의 기술”과 관련하여 “인간국보의 공예”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에서는 반클리프 아펠의 하이 주얼리와 동시에 메이지시대(1868-1912)의 공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작품들을 만든 명장들의 대부분은 “황실기예원”으로서 그 “기예”가 높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기예”라는 중요한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사람들, 즉 “인간국보”로 인정받는 표창제도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본 전시에서는 도예,

칠공, 금공, 염색 등 여러 분야의 “인간국보” 명장들의 “기예”를 염선한 소장 작품을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가와이 간지로(1890-1966) 코너에서는 다이쇼시대(1912-1926)를 중심으로 한 초기 작품을 전시합니다. “민예운동”에 깊숙히 참가하여 독자적인 작품을 만들기 이전의 화려한 작품을 통해 간지로가 중국과 조선의 옛 도자기 및 새로운 과학적 기법을 열심히 연구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양화 섹션에서는 올해로 서거 20주년을 맞는 아사다 히로시(1931-1997)의 작품을 특집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본화가 아사다 벤지(1900-1984)를 아버지로, 마찬가지로 일본화가인 아사다 다카시(1928-1987)를 형으로 하여 1931년에 교토에 태어난 아사다 히로시는 도시샤대학 경제학부를 거쳐 화가를 지망했으며, 조형시라고도 부를 만한 조용한 심상 풍경을 그린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우리 미술관에서는 서거 10주년에 아사다 히로시 회고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난 지금, 본 전시회가 다시 한번 그의 업적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제1회 컬렉션전에 이어 이번에도 “큐레이터얼 스터디즈 12: 샘/Fountain 1917-2017”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Case 2: He CHOSE it. Curated by 후지모토 유키오”라는 제목으로 게스트 큐레이터로서 미술가 후지모토 유키오(1950-) 씨를 맞이해 “변기”를 “샘”이라고 칭한 마르셀 뒤샹의 “허”와 “실”에 대해 “거울”을 키워드로 삼아 생각해 봅니다.